

4

현대불교
장간 4월

시론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
청정을 향한 실천
생명의 바탕
가을은 그것을
일깨워 준다
”

가을이다.
옛 책(상서(尙書))는 동아시아 온대지방의
상고시대 절기를 그 첫머리로 말하고 있다.

천지 네 절기를 다스려온 가문의 사람들 각
각 동서남북의 땅에 살게 하는 광경은 자못
경건하다.

해가 뜨는 것을 공손히 손님인듯 맞아 동녘
의 시작을 고루 차례로 할지니 낮이 그 길이가
밤과 같으므로... 그 백성은 흠어져 들로
나가고 새와 짐승은 흥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름에 짐승이 털갈이를
하고 가을에 와서 털갈이를 하고 겨울에는 그
새와 짐승들에게 가는 털이 난다고 말한다.

이어서 요임금은 3백이요 또 예순이요 또
여섯날이니 윤달을 두며 사시(四時)를 정하고
한해를 이루어 백성의 작업이 힘을 모아가
면 모든 공적이 다 넓고 기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천지 운행이 이 지역의 계절기로 된
자연현상을 굳이 요제(堯帝)가 정지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왕도(王道)의 반영임에 틀림없
다.

아득한 옛적부터 중국 황하유역과 별반 다
를 바 없는 한반도에서도 중국의 사계절 운영
에 의존한 것이 우리의 절서(節序)인 것이다.
하지만 고대에는 중국이나 한반도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일종의 보편성의 합의가 있었
으므로 황하 유역의 그것과 한강 유역의 그것
은 어느것 하나의 자연현상 가운데 포함되었
다.

이런 절기로 우리는 해마다 네 개의 다른
절기를 맞아서 살아오고 있다.

지난 여름이 갔다.
지난 여름의 일은 예로부터 홍수를 다스리
는 일을 정치로 여겨온 사실을 새삼 떠올려
주었다. 다스림(治)은 곧 물(水)에 물길을 잘
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쪽의 여러 곳에서 사람의 목숨, 짐
승의 목숨과 많은 재산을 희생시킨 그 무서운
집중호우는 북한지역도 다시 재난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제통화기금 통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제 현실의 거리에 떠도는 사람들에게
비를 피할 처마 밑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되
어 준 것이다.

아직도 여기저기 폐허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여름'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어김없는 절기를
배풀어 그 여름 뒤의 가을을 청했다.

가을 곡식이 다 익었다.

또한 얼마다 가을의 붉고 노란 단풍이 들어
갔다.

하늘은 더 커졌고 사위(四圍)는 웬지 텅 빈
것 같다.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렵게 일
구어 온 성과에 부푼 기대를 낳는 계절인데도
현연으로는 조락(凋落)과 쇠망에 대한 무상감
(無常感) 없이는 이 가을이 아닌 듯하다.

가을을 그냥 가을(秋)이라 하지 않고 '슬픈
가을(悲秋)'이라고 옛 사람들이 말한 것이 헛
되지 않다. 1년 네 절기 가운데 오직 가을에만
사람의 심사(心思)를 더해서 형용사를 내세운
그 예수가랄로 가을의 인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슬픈 가을에 세상은 어떻게 들
아가고 있는가.

몇 십년 동안의 성장 이면에서 그 성장 못

지않게 쌓여온 부패와 탐욕의 부분들이 정
치·경제의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워낙 오래
된 부패의 사슬이므로 이를 척결하는 일은 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다.

비단 나라의 일부만이 아니다.
중산층이라는 가진물이나 서민층이라는 인
습의 대중사회역시 저마다 부패와 타락 그리고
탐욕의 누적으로부터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 땅의 참상은 누구 하나 어느 집단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져
야 할 책임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크나
큰 과제의 이름으로 확인된다.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저 산골 농민은 농민
대로 저마다 바른 삶이 모자란 것이 오늘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런 국면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해답은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하나가 제 정신을 가다듬
는 청정심의 발로 밖에는 없다. 그것은 거의
고행에 해당한다.

청정이란 깨끗이나 더러움의 상대이다. 그
런데 청정은 그런 더러움의 상대를 넘어서 인
간과 세계의 본연(本然)을 뜻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법신은 청정함이다. 청정법신 비로
자나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든 응신(應身) 화
신(化身) 이전의 본질이다. 이 본질적인 청정
을 함양이 청정하려는 일이 수행이다.

지금 세상이나 사회는, 아니 산중도 수행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 바로 이 청정을 향한 수
행으로서의 자기실현이야말로 오늘의 미혹을
덜치고 나갈 생명의 바탕이다. 가을은 그것을
깨쳐 줌으로써 '슬픈 가을'이 아니라 '깨달음
의 가을(覺秋)'이다.

표다지기 분주... 과열 우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한달 앞으로'

'월주스님 3선론' 중대변수 될듯 후보마다 선거사무실 속속 마련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과 제
12대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선거
바탕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열기
를 더해가고 있다.

9월 25일과 10월 8일자로 중앙종
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가 공고 된
가운데 이미 공식 비공식적으로 출
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월주, 월탄, 설조, 지선, 지은 스
님등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스님들
은 조계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속속 마련하고 정책개발과 교계여
론을 점검하며 득표 전략 세우기에

바쁜 모습이다. 또 핵심 참모진들은
각 교구분사별 종회의원 후보자와
선거인단 예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표방을 다지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종책을 공
식 발표한 후보는 없지만 대체적
으로 종단개혁과 21세기 종단의 비전
제시 등에 종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
이렇게 주변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월주스님 3선론'에 대
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방은 9
월 29일 '총무원장 3선 반대'를 위

한 범불교도 연대회의'가 발족되면
서 본격화 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
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월주스님의 출마는 명백한 3
선이라고 규정했다. 월주스님이 8
년만에 6개월여간 총무원장으로 직
무한 사실이 있는만큼 이번 출마는
3선에 해당되며 이는 종헌 제53조
2항의 "총무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대목에 위배된
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위원장 설조)는 즉각 교
계 신문을 통해 "총무원장 추대위
스님에 대한 부당한 음해는 중지되
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반론을 제
기했다. 반론의 핵심은 80년도 월주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신근부
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이므로 장
기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과 현
종헌은 94년에 개정공포된 것이므
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법조계의 종헌 53조2항
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으며 종
단내 법규위원회는 심판신청이 없다
는 이유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10월2일자로 설조
스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이후
8일 설조스님이 답변을 냈으나 질
의서와 답변의 내용 역시 3선 출마
의 부당성과 정당성으로 요약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7일 총무원장
사무실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면담을 하고 싶다"는 면담신청서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에서 월주스님
의 수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

7일 열린 금오문도회 운영회의
(의장 탄성)에서 월주 월탄 설조스
님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거론 됐으
나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한 점도
선거 구도가 더욱 치열해 질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직접 '한 표'
를 행사하게 될 중앙 종회의원과

선거인단 선거운동도 뜨겁게 전개
되고 있다. 일부 교구분사는 교구종
회를 통해 중앙종회의원을 경선 없
이 선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4명의 중앙종회의원이 배정된 직할
교구의 경우 10여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표 다지기에 분
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
종회의장에 도전장을 낸 법통스님
(직지사부주지)과 일연스님(불암사
주지)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면
적 종회의원 출마자들을 부지런히
접촉하고 있다.

개혁종단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
는 이번 선거와 관련, 교계는 과열
혼탁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
려를 표하고 있다. 7일 결성된 대구
경북지역 교구분사 주지협의회는
중립을 선언했다.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분사주지모임(회장 지선)
도 9일 중앙총무기관과 종단 주요
소임자의 중립과 후보자들의 건전
한 총책대결,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
앙총무기관의 강압과 회유 거부 등
을 내용으로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선거의 후보자
들에 대해 과열과 혼탁으로 치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담화문
을 거듭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수요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참여대회
참석차



'할 수 있다' 믿음 중요

-15~16일 범불교적으로 열리고있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6차대회가 진각종 주관으로 마련되는데. 이제 국난극복의 의
지도 불자들로부터 국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국난을 참회대법회로 극복하고자 하는 뜻은 나부터 참
회하는 생활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사회와 국
가를 위하는 진오국이 불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
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수행하는
우리 종단은 이번 법회에 전종도가 동참해 입제식때 전국 1백
22개 심인당에서 스승들의 집공으로 일제히 옴마니반례를 3시
간 강군을 합니다. 부처님과 나와 함께 되는 정진으로 '불작불
행(佛作佛行)'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6차 법회를 특색있고 다채롭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3가지 원력을 함께

▲크게 3가지 불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우리 종단의 가장 큰
행사인 중조열반절 불사와 국난극복과 민족화합을 서원하는
'옴마니반례' 6차진언비를 서우고 그 제막식도 참회대법회와
함께 갖습니다. 진호(鎭護)국가 불사는 비단 불자들만이 동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호국정신과 실천 의지
를 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별도로 갖발을 제작해 총인원 인군을 비롯 조계사 상북구청 주
위 간선도로에 달아 장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회장도 2억여
원을 예산으로 전면수리를 해 정성과 공을 들였습니다.

122개 심인당서 일제히 정근
우리 농축수산물 장터도 열어

▲생활불교 중생제도
를 통한 호국불교의 의지를 강조하신 중조님의 사상을 되새기
는 추념불사와 국난극복의 의지는 그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
다. 이날 회당중조님의 새로운 종영을 봉안하는 의식도 함께
봉행됩니다. 우리 종단이 이제 포교와 교육불사는 물론, 복지
통일불사에도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량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언비는 종단차원으로는 처음 세우시는 것이지요.
▲사실 오래전부터 총인원에 진언비를 건립하려는 원을 가졌
는데 마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일정을 잡고나니 마침내 연이
당겨군요. 예석으로 좋은 자연석이 구해져 총인원 마당 한가운
데 진언비를 조성했습니다. 국내 자연석비로서는 최대규모라고
생각되며, 이제 비를 세운 인연공덕으로 국난이 꼭 극복될것이
라고 믿지요. 그리고 누구나 도량에 들어서면 비둘이를 하면서
참배하게 됩니다.

-부대행사로 우리 농축수산물 공동직거래장이 열리지요.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의 참여로 16일 대법회날부터 토·일
요일까지 3일간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총인원이 주객기라 주민들
과 함께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자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며
편의와 혜택을 나눌 수 있게 하려는 뜻입니다. 싱싱한 우리 산
물을 직거래해 농민도 좋고, 값싸게 사는 주민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이 실천가정을 돕는 기금으로 전달돼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위연관 기자(yryui@buddhopia.com)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를 돌리며 무명을 밝히자

(보물 제684호)

사업장제

소원 성취

병자쾌차

입장소멸

학업 성취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할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진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최전성 정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행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달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제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염정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행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 지 청 안 합 장

입 제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등(1인당)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할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

예금주: 용 문 사

• 당일엔 혼잡하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용문사** 문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법 보 대 찰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 안 사

조계사 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